

비행기가 김포를 떠나면서 우리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악극 '울고넘는 박달재'의 마추 순화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10년전의 대중연극을 재현시켜 뮤지컬의 본고장인 뉴욕까지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LA 공연은 예상대로 이틀 4회 전공연이 매진된 상태에서 엄청난 고조도를 울리며 막을 내렸다. 우리는 두 번째, 뉴욕에서 긴장속에 개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뉴욕은 문화적으로 입맛이 까다로운 관객층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의상과 소품정리를 하는 중에 '금봉'이 역할의 여주인공이 분장실에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두가 뉴욕 분위기에 들떠있는 틈에 '금봉'이를 숙소에서 그날두고 모두 버스에 탄 것이다. 주인공 없

‘합의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공행례인

는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아연상재하였다. 속소는 극장에서 한시간이 넘는 거리, 전 화걸고 훌쩍서 보내고 난리를 치는데 흑인 택시기사에게 부속이된 금봉이가 비몽사몽으로 분장실에 들어온다. 모두 떠난 빈 숙소에서 위경련을 일으켰던 것이다.

연출자인 나는 물론 주최 측도 모두 사색이 됐다. 1천석의 극장은 벌써 관객들로 가득 차있다. 미국의 밥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사없이 링겔조차 갖을 수가 없다.



김상열

‘울고넘는 박달재’ 뉴욕공연

주인공이 넘어진 공연... 더구나 '금봉'이는 전체 대사의 80%를 해야하고 10곡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개막시간 5분이 지나니 객석에선 개막을 재촉하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온다.

"할수 있었나?" 나는 다그쳐 물었다. "일어설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금봉이의 손발에 바늘로 사관을 쓴다. 검은 피가 나온다. 금봉이는 겨우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향하며 "선생님 나...함께해요"한다. 나는 공연내내 무대앞에서 손을 댄을 뒤며 무대위의 '금봉'이를 주시한다. 우리 모두 외국공연에 들떠서 바로 이웃, 남을 보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소풍하고, 사진찍고, 먹고 마시는 중에 남의 외로움과 고통을 받기엔 결과였다.

막이 내리지 어두운 무대로 뛰어가 '금봉'이를 깨웠다.

"살았다 금봉아!" 내손엔 진득한 땀이, '금봉'이와 얼굴엔 해녀 지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극단 신시대대표, 극작·연출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부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로”

한·중·일 교토대회

3국불교 상호협력 등 '선언문' 채택

나라헌 동대사서 세계평화 기원법회도

관련기사 3면

한중일 불교교류우호회의 제3차 대회가 10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다. 3국불교의 친선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 등 제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본 선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3국불교우호회의의 내년부터 대규모 대회를 치르고 각국의 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석주스님(참보사조실)을 비롯 한국불교총연합회 회장 월주스님과 각종단 간부등 대표단 참관단 2백여명이 참가했다. 주최국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각각 2백여 승재가 불자가 참가했다. 입성교회와 교도 보문관에서 27일 열린 개회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각국 대표의 인사와 기조연설 및 보충연설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한국대표단장 월주스님은 "3국의 불교인들은 각국의 정치적 이념적 장벽을 넘어 인도주의적 교류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나카무라 고오류(中村謙隆) 대회장(일중안불교교류회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국불교도는 진정한 화합공생의 이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 인류의 신원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교환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 서로 도우며 사는 21세기를 열자"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불장한 조박초(趙朴初) 중국불교단 명예단장도 축사를 보내 "이번 대회가 불교종교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해 불교를 세계로 전파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각국 대표단의 기조 연설과 보충연설에서 한국측은 지하스님(중앙승가대총장)이 기조연설에 나섰고 석초 진각종총무원장과 법공스



○한중일 불교교류우호회의 제3차 대회가 일본 교토에서 열린다. 3국불교의 친선과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사찰환경 보존대책 세워라”

조성준의원 대정부 질의

조성준 국민의회의 의원은 10월 29일 제185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사회·문화분야)에서 경주 황룡사·분황사, 익산 비파사, 부여 정림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종·복원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준의원은 이와함께 △문화재예산의 증액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 대책 △해인·동아골프장 문제 △산동 정비와 마애미륵불 주변 음식점 허가문제 등 불교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황룡사 등의 복원문제와 관련, 송태호 문화부장관은 "현재 황룡사와 비파사의 규모와 건축양식에 대한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사찰복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서 고건 국무총리는 △문화부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전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해인·동아골프장 건설 반대 △문화재 보호 위한 자치단체 행정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원합의 재협상을”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회장 설초)은 10월 24일 속초 컨상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10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이 내무부, 문화체육부와 합의

‘강원총림’ 11일 출간

조계종 2년여 작업

승가교육인 산실인 정동강원 관련 종합 자료집인 <강원총림>이 2년여 작업 끝에 발간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11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 역대장사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늦가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완연한 11월에는 운주사의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찾아 누운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새상이 바뀐다는 민중들의 바람(願)을 풀어보자는 의미가 있다. 운주사의 탑과 불상들은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애감도 주지않는 광범한 논과 구름 속에 자리한 쌍봉사는 기묘한 긴장감과 기대를 품게 하는 이색적인 절집입니다. 정면 1칸 측면 1칸에 3층목탑 모양을 하고 있는 대웅전의 고즈넉한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첫손으로 꼽고 있는 철강선사부도탑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케 합니다.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11월 테마여행 - 운주사·쌍봉사

■ 참가 안내

- 출발: 11월 22일(토) 밤10시·조계사 앞
- 회비: 4만(조식제공)
- 안내: 환호관(장남대 박물관 하예연구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 출발: 12월 13~14일(1박2일)
- 장소: 제주도, 제주암지·법화사지·약천사 등지
- 출발: 40명(선착순)
-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 접수도 함께 받습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무염무영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일일약품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울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원 거듭할 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심판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 △ 주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 분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 △ 접수처: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 시상내용:
 - 유야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수금매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수금매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용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경 미래내 실버타운 유무상통마을 기공 축

평화를 빕니다.

미래내 실버타운 유무상통 마을 기공식을 성대히 마칠 수 있었음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가까워서 참석해 주시고 또한 상헌을 보내 주셨음은, 이 나라 노년 복지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해 보라고 하시는 책력으로 알고 깊이 명심토록 하였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전형적인 우리의 가을 날씨였고 고운 색깔로 아름답게 물든 미래내의 단풍, 산들과 호수는 가히 절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녕 노부모님들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일이 찾아 읽고 인사 올리지 못함을 널리 배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두손모아 비읍니다.

- 도척성당 주임 겸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
방상복 신부 두손모음



■ 건축내역(연건평 6,045평) : 현재 1만평부지 토목공사 완료

- 지체공사(7개) : 체육관, 전기실, 세탁실, 화장실, 영인실, 엘리베이터실(2)
- 1층(1개) : 식당, 주방, 식당, 화장실, 상담실, 민화실, 사무실, 지체실, 물리치료실, 기계실, 병실, 진찰실, 의무실, 의료부속실
- 2층(1개) : 운동실, 강당, 자선봉사실, 복합방(남·여), 커피실, 휴게실, 상담교부실, 회의실, 사예실, 도서실, 취미교실, 국악교실, 미술교실, 노래연습실, 비디오 강의실, 레저오락실, 기도실, 도예실, 원예실, 공작실, 미용실
- 3층~3층(4개) : 주거시설(3층 수직형 옥스) ○ 부대시설(보통) 1개

■ 입주금 내역

구분	전용면적	분양실수	보증금	생필비	총입주금
1인실	8.5평	200실	1억1천	5천만원	1억5천
2인실	17평	100실	2억1천	1억1천	3억
합계					
1인실	보증금	공금25%	공금50%	공금75%	일부시
2인실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인실	5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 위 보증금은 중도에 내기거나 사임시 본인이나 자손 혹은 본인 지명자인 경우 10% 이상, 1년 보증금도 후회없이 100%에, 일체비와 임대료, 전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후회없이 그 밖에 입주금 사용목적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전하여 받은 세 주십시오.

- 입주예정일 : 2000년 5월경
- 건축허가번호 : 인성 97-6-246
- 설계 : (주)네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계 철(인드레아)
- 감리 : (株)兼善建築士事務所 대표이사 배 승 업
- 시공 : (주)진덕산업투자회사 대표이사 최 건 국(토마스)
- 주관 :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도척성당 설립)